

WorldCat과 한국 관련 장서의 분포에 관한 연구*

- 청소년 대상 전기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of Books on Korea in WorldCat: With a Focus on Biographies for Juvenile Readers

윤 정 옥 (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청소년 대상 전기의 서지레코드 분석 |
| 2. 선행 연구 | 5. WorldCat 분석과 문제점 |
| 3. 한국 관련 전기의 서지레코드 분포 | 6.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WorldCat에 수록된 한국 관련 전기도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관련 인물에 대한 지식 분포 현황 및 확산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 주제에 Korea를 포함하는 전기도서 서지레코드 15,007건과 청소년 대상 전기도서 487권의 언어와 주제, 주제 인물, 미국 내 소장도서관 등 분석하였다. 청소년 대상 영어전기 30권은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가 많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장 많이 등장한 주제 인물이었다. 한국어전기 457권은 소장도서관 수가 많지 않고,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가장 많은 책에서 다루어졌다. 한국 관련 청소년 대상 전기도서들은 본격 전기보다 초등 저학년 수준 그림책이나 일화 중심 스토리 등 편향성을 보여, 도서관 장서를 통한 한국 관련 인물에 관한 흥미 유발이나 지식 확산의 전망은 제한적이었다. 주제 패시의 오류, 동일 주제 인물의 분산, 소장도서관 리스트의 부정확성 등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disseminating knowledge on Korean people by analyzing biographies for juvenile and general audiences with the subject term 'Korea' in WorldCat. Languages and topics of 15,007 bibliographic records and topic facets, biographees, and holding libraries in the U.S. of 487 biographies for juvenile audiences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30 English biographies are held by many libraries in the U.S. and the most popular subjects are Kim Il-song and Kim Jong-il, 2) 457 Korean biographies are not held by many libraries, and King Sejong and the General Yi Sun-sin are the most popular subjects, 3) many Korean biographies are picture books for the very young readers with the focus on Korean folklores and anecdotal biographies, and 4) there are some errors in topic facets, dispersion of biographees, and inaccurate holding lists of bibliographic records. Therefore, there seems to be little to read with an interest and promote the diffusion of knowledge on Korean people through libraries.

키워드: 월드캣, 한국 관련 전기, 지식 확산, 서지레코드 분석, 소장도서관

WorldCat, Biographies of Koreans, Knowledge Diffusion, Analysis of Bibliographic Records, Holding Libraries

* 이 논문은 2015-2016 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1월 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221-239,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4.221]

1. 머리말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OCLC의 WorldCat은 2015년 9월 현재 347,400,683건의 서지레코드를 수록하고 있으며, 소장자료는 1,308,883,155건에 이른다(OCLC 2015a). 2013년 6월 당시 세계 170여 국가 72,000여 개 도서관 소장 자료 250,021,271건의 서지레코드를 수록하고 있었던 것(OCLC 2013a)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사이 1억 2천여만 건의 서지레코드가 증가하였다. 실제로 WorldCat에는 매 10초마다 한 건씩 새로운 서지레코드가 추가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이며 급속히 성장하는 WorldCat은 명실공히 전 세계 주요 도서관들의 소장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OCLC Research는 일련의 연구(Dickey 2011; O'Neill, Connaway and Dickey 2008; Lavoie, Connaway and O'Neill 2007)에서 WorldCat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마이닝의 소스로 활용하여 각국의 도서 출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 측정, 도서의 이용자 수준 분석, 전자자원의 증가 동향 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WorldCat에 수록된 서지레코드를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주제 관련 도서관 장서에 반영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지식 분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들(윤정옥 2012; 2013)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연장선상에서 WorldCat이 가진 “통합적 주제 관련 정보원 및 주제 확산 도구로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특히 전기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인과 관련된 지식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기는 “한 사람의 삶의 기록”이며 “사람의 삶과 관련된 문학의 한 분과”(Harrod 1984)라고 정의된다. 특히 잘 쓰인 전기는 역사, 사람, 그리고 문학적 예술성이라는 세 가지 필수요소를 갖는다고 평가된다(Sutherland and Arbuthnot 1986, 440). 따라서 전기를 통해서 독자들은 사람에게 대해서 알게 되고, 그가 살던 시대, 역사, 문화 등 여러 측면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도서관에 한국인의 전기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면, 독자들은 개별 한국인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등에 관한 지식도 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 하에 이 연구에서는 WorldCat에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기도서 서지레코드들이 얼마나 있으며, 어떤 인물들이 주제로서 다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도서관들이 이들을 소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청소년 대상 전기의 언어, 주제(topic), 주제 인물(subject), 미국 내 소장도서관 리스트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관련 인물에 대한 지식 확산의 현황 및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량분석 및 내용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 (1) WorldCat의 Advanced Search에서 ‘Subject: Korea’, ‘Content: Biography’, ‘Format: Book’으로 제한하여 검색하였다.
- (2) 검색 결과 서지레코드들을 Topic(주제),

Language(언어), 및 Audience(이용자 수준)의 3개 패킷 분포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 (3) 일반 및 청소년 대상 전기의 주제 분석, 청소년 대상 전기의 언어별 주제 분석, 주제 인물 및 미국 내 소장도서관 분석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 1) 주제, 언어 및 이용자 수준 분석: 패킷별 데이터 그룹의 교차 테이블 작성.
 - 2) 주제 인물: 각 OCLC 서지레코드의 Subject 필드에서 인명주제표목을 추출.
 - 3) 소장도서관: 각 OCLC 서지레코드 별로 United States로 지역을 제한하여 Holdings List를 추출하고 엑셀로 정리.

2. 선행 연구

WorldCat 관련 연구는 OCLC 산하 연구기관 인 OCLC Research에서 다수 진행되었다. Dickey (2011)가 수행한 프로젝트에서는 WorldCat 데이터로 국가별 장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볼리비아, 칠레, 독일 등 6개 국가의 도서 출판 현황을 분석하였다. Dickey는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의 집합에서 추출한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대형 데이터 세트를 컴퓨터의 도움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특히 서지 데이터의 “집합 컬렉션”으로서 WorldCat 데이터베이스의 잠재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WorldCat이 장서 및 서비스 개발의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확장된 검색 및 접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O'Neill, Connaway와 Dickey(2008)는 WorldCat은 책들과 소장도서관들을 식별하는 정보원이므로 소장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자료가 목표로 하는 독자 수준 유형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독자 수준은 이 자료를 선정한 도서관 유형에서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데이터는 검색 개선, 장서 분석, 독자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향상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MARC 서지레코드에서 자료의 이용자 수준을 나타내는 008 필드 'Audience Level' 코드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고, 도서관 유형에 따라 다시 가중치를 부여하여, 30권의 단행본 샘플에 대한 독자 수준 순위를 측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WorldCat의 FictionFinder, WorldCat Identities, Dewey Browser 같은 도구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 데이터는 2015년 현재 실험적 데이터 서비스 중인 WorldCat Identities Network의 각각의 'WorldCat Identities page'에서 제공되고 있다(OCLC 2015e).

Lavoie, Connaway와 O'Neill(2007)은 MARC21 레코드에서 알고리즘으로 디지털 자료를 식별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WorldCat에 편목된 디지털 자료의 규모, 유형, 특성 및 소장 패턴,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른 디지털 자료의 편목 활동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MARC21 서지레코드 데이터에서 'Type of Record=computer file (리더의 byte 6 값이 "m"일 때), Form of Item=electronic (008필드의 byte 23 혹은 29 값이 "s"일 때), General Material Designation (GMD)=electronic resource' 3개 필드 및 006, 007, 533, 856 필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자

자원을 식별하고 이들의 집합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Bipolar Disorders: A Guide to Helping Children & Adolescents* (M. Waltz) (1,340 holdings) 등 2005년 7월 당시 WorldCat에 가장 널리 소장된 디지털 자원 10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ung, Chan과 Song(2006)은 중국 한방 의학 주제 관련 자료의 중국어 외 언어 출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WorldCat 서지레코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70년대 이후 한방 관련 주제의 출판이 증대하고, 특히 침술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출판 레코드를 분석하여 주제 관련 영어 자료의 비중이 가장 크고, 세계적으로 한방 의학이 점차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CLC Research는 최근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WorldCat 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 탐색 및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여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를 택하여 WorldCat과 그것의 데이터에서 수집할 수 있는 독특한 것들을 공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시도하였다(OCLC Research 2015a).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매달 1개의 주제를 택하여 WorldCat을 분석하고 주제 순위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2015년 9월 현재 “Action & Adventure Movies of 70s, 80s, 90s and Today” 등 7개 주제 리스트를 공개하였고, 2014년에는 “Top 10 Love Stories in Libraries”, “Top 10 Scottish Works” 등 12개 주제 리스트를 공개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발명가의 달’을 기하여 “Top 25 Inventors Found in Libraries”를 공개하고 전 세계 도서관 소장 도서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25

명을 가장 인기 있는 발명가라고 하여 명단을 편성하였다(OCLC Research 2015a). 이 명단에는 Benjamin Franklin(1706-1790), Alexander Graham Bell (1847-1922), Leonardo da Vinci (1452-1519)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은 FAST(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 표목 “Inventors”를 포함하는 레코드의 서브세트에서 추출되었다. 그 다음 주제로서의 개인명(600 필드)을 레코드에서 추출하고 OCLC 회원 도서관 소장정보로 순위를 매겼다. 이것은 WorldCat이 “학술 및 문화적 기록(the scholarly and cultural record)의 방대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OCLC Research 2015b).

윤정옥(2012)은 목록에서 특정 주제 관련 자료의 서지레코드 분포는 잠재적 지식 확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WorldCat 수록 한국 및 일본 관련 서지레코드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연구자는 오늘날 전 세계 도서관들이 WorldCat 같은 국제적 종합목록을 통해 연결되고, 서지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상호대차 등으로 자원까지 공유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목록은 지식 탐구의 시발점이며 도서관 장서는 지식 확산의 잠재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증적 상관관계의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윤정옥(2013)은 다른 연구에서 WorldCat 수록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도서의 언어, 장르, 주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소장도서관 및 보유 현황을 분석하였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청소년용 책의 서지레코드 및 1997년 발행 도서들의 소장도서관 수, 언어, 장르 및 주제 표목 분포를 계량 분석한 결과는 한국 관련 도

서는 한국어 텍스트의 집중,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수준 도서의 과잉, 옛날이야기나 일화 중심 전기서 등 장르와 주제 편향성 등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한국 관련 읽을거리의 흥미 유발이나 지식 확산 전망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 한국 관련 전기의 서지레코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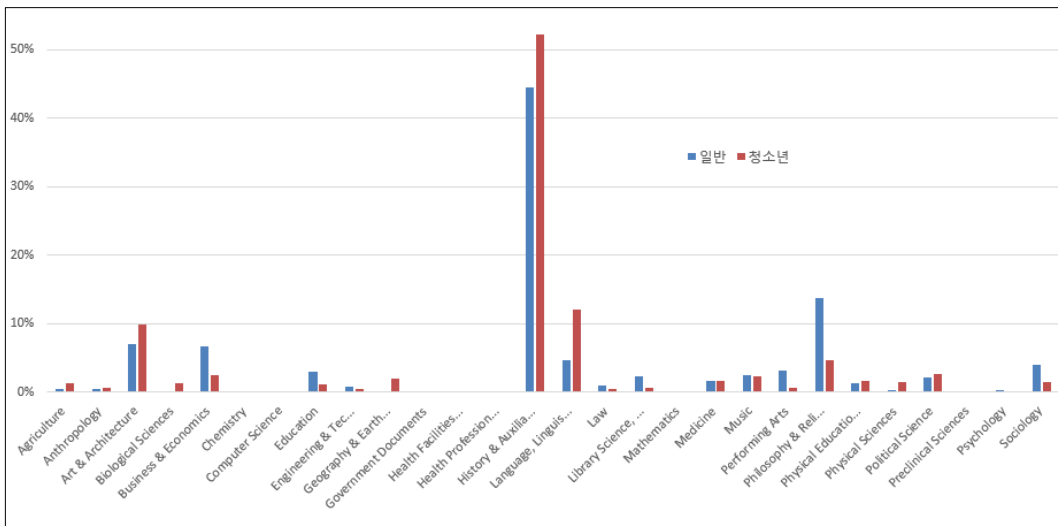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WorldCat에 수록된 한국 관련 전기의 서지레코드를 분석하였다. 전체 자료의 언어, 주제와 연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독자 수준을 일반(Non-Juvenile)과 청소년(Juvenile)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데이터 추출을 위해 2015년 9월 13일부터 25일 사이 WorldCat에서 주제(su:)에 Korea를 포함하는 서지레코드를 검색하고, 이들을 매체, 언어, 장르 및 주제 패

킷으로 범주화한 결과를 도표화하였다.

WorldCat에서 주제에 Korea를 포함하는 서지레코드 373,987건 중 도서의 서지레코드는 238,872건(전체의 63.9%)이며, 전기도서의 서지레코드는 15,007건(6.3%)이다. 청소년 대상 도서의 서지레코드는 6,876건(전체의 2.9%)이며, 그 중 전기는 918건(청소년도서의 13.4%)이다.

〈그림 1〉은 한국 관련 전기도서의 서지레코드 15,007건 중 일반 대상 14,089건(93.9%)과 청소년 대상 918건(6.1%)의 Agriculture, Anthropology, Art & Architecture 등 28개 주제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는 WorldCat에서 사용된 주제 패킷의 영문명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또한 각 주제에 해당하는 서지레코드 건수나 비율은 명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분포 현황만 보여주었다.

일반 및 청소년 대상 전기 모두에서 'History & Auxiliary Sciences(이하 '역사'라 부름)' 주



〈그림 1〉 일반 및 청소년 대상 전기도서 서지레코드의 주제별 분포 [2015.9.15.]

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대상 전기도서 중 '역사' 주제 서지레코드는 모두 5,590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Philosophy & Religion(이하 '철학과 종교'라 부름)' 주제 서지레코드가 1,721건(13.7%), Art & Architecture(이하 '예술과 건축'이라 부름) 881건(7.0%), 'Business & Economics(이하 '비즈니스와 경제학'이라 부름)' 825건(6.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전기도서에서도 '역사' 주제 서지레코드가 301건(52.3%)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Languages, Linguistics, & Literatures(이하 '어문학'이라 부름)' 69건 (12.0%), '예술과 건축' 57건(9.9%), '철학과 종교' 27건(4.7%) 등이 그 다음이었다. 다른 주제들은 서지레코드 건수가 매우 적고 분산되었다.

원래 WorldCat의 한국 관련 도서 서지레코드 238,872건 가운데 '역사' 주제는 48,277건으로 20.2%에 해당한다. 이것과 비교하면 일반 및 청소년 대상 전기도서 모두에서 '역사' 주제

의 비중은 두 배 이상 크다. 이것은 전기가 역사상 인물을 주로 다루며, 음악가, 과학자, 지리학자와 같이 전문 분야나 주제 영역이 분명한 인물도 일반적으로 '역사'에 넣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 청소년 대상 전기의 서지레코드 분석

4.1 언어별 소장도서관의 분포

WorldCat의 한국 관련 청소년 대상 전기도서의 서지레코드 918건 중 한국어도서는 817건(89.0%), 영어도서는 33건(3.6%)이며, 나머지 68건(7.4%)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스웨덴어, 미상 언어 서지레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 1>에 보는 것과 같이 한국어 도서와 영어도서 서지레코드 850건 가운데 중복을 제거하고, 주제 패킷을 가진 서지레코드

<표 1> 한국어와 영어전기의 소장도서관 분포

한국어전기			영어전기		
소장도서관 수	도서 수	비율	소장도서관 수	도서 수	비율
10개 이상	11	2.4%	100개 이상	9	29.0%
9개	3	0.7%	70-99개	3	9.7%
7개	4	0.9%	50-69개	2	6.5%
6개	4	0.9%	30-49개	3	9.7%
5개	18	3.9%	10-29개	4	12.9%
4개	26	5.7%	7개	3	9.7%
3개	37	8.1%	6개	5	16.1%
2개	92	20.1%	5개	1	3.2%
1개	131	28.7%	2개	1	3.2%
0개	131	28.7%	2,737개	30권	100%
950개	457권	100%			

487권, 그리고 이들이 기술하고 있는 책 487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경우에 따라 서지레코드 건수 혹은 도서 권수를 각각 분석대상으로 언급하였다.

〈표 1〉은 한국어전기 457권과 영어전기 30권의 미국 내 소장도서관 분포를 보여준다. 한국어도서와 영어도서의 미국 내 도서관 소장 현황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영어전기 30권은 모두 2,737개 도서관에, 한국어전기 457권은 모두 950개 도서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전체 487권의 미국 내 소장도서관은 모두 3,687개이다. 단순히 계량하면 영어도서는 1권 당 평균 91개 도서관, 한국어도서는 평균 2.1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언어에 따라 소장도서관 수의 차이가 매우 크며, 한국어도서는 사실상 평균 소장도서관 수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한두 개 도서관만 소장하고 있거나, 아예 소장도서관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전기 457권 가운데 10개 이상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는 11권(2.4%)에 불과하다. 단 1개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가 131권(28.7%), 2개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가 92권(20.1%)으로, 결국 절반 가까운 223권(48.8%)을 미국 내 한두 개 도서관만이 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없는 도서도 131권(28.7%)이다. 이들 중 일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나 여기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영어전기는 30권으로 수가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 9권(29.0%)이 100개 이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수백 개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들도 있다. 소장도서관 수가 10개 이하인 도서는 10권(33.3%)으로, 그 가운데 소장도서관이 7개인 도서가 3권, 6개인 도서가 5권, 그리고 소장도서관 수가 5개와 2개인 도서가 각각 한 권씩 있다.

한국 관련 청소년 대상 도서들 중 영어도서는 한국어도서에 비하여 소장도서관 수가 많은 것을 이전 연구(윤정옥 2013)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 장르로 한정함으로써 대체로 미국 도서관 장서에서 한국 관련 인물을 다룬 도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한국인에 관한 지식이 도서를 통해 알려질 기회는 많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4.2 영어전기의 주제 인물과 소장도서관

전기는 사람에 관한 저작이므로 주제 인물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표 2〉는 청소년 대상 영어전기도서 30권 가운데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의 순위대로 20권의 주제 인물을 보여준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이 소장한 영어전기는 Linda Walvoord Girard와 Linda Shute의 *We adopted you, Benjamin Koo* (Niles, III: A. Whitman, 1989)이다. 한국 관련 청소년 대상 전기 중 언어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도서관이 소장한 이 도서는 1989년판 인쇄본, 전자도서, 브라우식 점자도서, 1999년판 인쇄본, 2014년판 전자도서 등 모두 7개 판을 538개 도서관이 갖고 있다. 이 도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34페이지 그림책이며 주제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표 2〉 영어전기의 주제 인물과 소장도서관 수 (N=20)

서명	주제 인물	소장 도서관
Walvoord, L., & Shute, L. (1989). <i>We adopted you, Benjamin Koo</i> . Niles, Ill: A. Whitman.	Koo (고아소년)	538
Stewart, M. (2000). <i>Se Ri Pak: Driven to win</i> . Brookfield, Conn: Millbrook Press.	박세리	388
Benson, S., & Raffaele, G.-A. (2002). <i>Korean War: Biographies</i> . Detroit: UXL.	한국전쟁	319
Behnke, A. (2008). <i>Kim Jong Il's North Korea</i> . Minneapolis, MN: Twenty-First Century Books.	김정일	221
Fenton, J. (1988). <i>All the wrong places</i> .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펜튼 (종군기자)	201
Sohn, W. T. (2003). <i>Kim il sung and Korea's struggle: An unconventional firsthand history</i> . Jefferson, N.C: McFarland.	김일성	155
Ingram, S. (2004). <i>Kim Il Sung</i> . San Diego: Blackbirch Press/Thomson/Gale	김일성	131
Koestler-Grack, R. A. (2004). <i>Kim Il Sung and Kim Jong Il</i> . Philadelphia: Chelsea House	김일성, 김정일	116
Piddock, C. (2007). <i>North Korea</i> . Milwaukee, WI: World Almanac Library.	북한	105
Hart, J. (2008). <i>Kim Jong Il: Leader of North Korea</i> . New York: Rosen Pub.	김정일	90
Wyborny, S. (2009). <i>Kim Jong Il</i> . Detroit: Lucent Books.	김정일	82
Tieck, S. (2014). <i>PSY</i> . Minneapolis, Minnesota: ABDO Publishing Company	싸이	64
Werstein, I., & Papin, J. (1969). <i>The trespassers: Korea, June 1871</i> . New York: Dutton.	한미조약 (1871)	57
Goldstein, N. (1999). <i>Kim Dae-jung</i> .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김대중	49
Peterson, T. (2003). <i>Korean Americans</i> . Chicago, Ill: Heinemann Library.	이민가정	48
Aldridge, R. (2009). <i>Ban Ki-Moon</i> .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반기문	35
Yi, Y., & Kim, Y. (1982). <i>The hero of the Sal River battle</i> . Seoul, Korea: Daihak Pub. Co.	을지문덕	23
Yi, Y., & Kim, Y. (1982). <i>Dazzling Pulguk Temple: The story of Kim Tae-song</i> . Seoul, Korea: Daihak Pub. Co.	김대성	22
Sheafer, S. A. (2008). <i>President Roh Moo Hyun</i> . Broomall, Pa: Chelsea House.	노무현	20
Chang, C., Sō, C., & Han, S. (2011). <i>The patriotic story of martyr Gwansun Yu</i> . Sōul, Korea: Ungjin Chuniō.	유관순	15

- Andrews, Benjamin Koo -- Juvenile literature.
- Adopted children -- Korea (South) -- Biography -- Juvenile literature.
- Intercountry adoption -- United States -- Biography -- Juvenile literature.

이 도서의 서지레코드(OCLC No. 18383061)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기 때 입양된 9살 소년

Benjamin Koo Andrews가 다른 나라에서 입양되어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도서이다. 이 도서는 한국 혹은 한국인보다는 입양이라는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어찌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첫인상의 형성 혹은 초보적 지식의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관련 전기는 골프선수 박세리를 주제로 한 M. Stewart

의 *Se Ri Pak: Driven to win* (Brookfield, Conn: Millbrook Press, 2000)(OCLC No. 41572595)이다. 이 도서 역시 48 페이지의 초등학교 수준 그림책으로, 인쇄본과 전자책의 2개 판을 모두 388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표 2〉에 포함된 영어전기 중 3권은 북한의 이전 지도자인 김정일, 3권은 김일성, 그리고 1권은 김정일과 김일성을 함께 다루어, 이 두 사람이 청소년 대상 영어전기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 인물로 나타났다. 이 도서들은 모두 미국 내 출판사에서 발행되었고, 80여 개에서 200여 개에 이르는 많은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WorldCat을 주제 Korea로 검색하면 Korea(South)와 Korea(North)에 관련된 도서가 다 검색되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현대 한국, 즉 남한 관련 인물을 다룬 영어도서 중 *Se Ri Pak* 다음으로 많은 도서관이 소장한 책은 대중가수 싸이를 그린 S. Tieck의 *PSY* (Minneapolis, Minnesota: ABDO Publishing Company, 2014)이다. 초등학교 수준 그림책인 이 도서는 64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N. Goldstein의 *Kim Dae-jung*(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으로 49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밖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다룬 영어전기가 각각 1권씩 있었다. 고대 인물을 다룬 것으로는 을지문덕과 김대성을 주제로 한국 내 출판사에서 발행된 영어전기가 각각 1권씩 있으며, 20여 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영어전기 30권 중 〈표 2〉에 포함되지 않은 10권은 10개 미만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E. B. Adams가 일연의 『삼국유사』

에 나온 김경문, 문무왕, 이차돈,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풀어쓴 4권의 그림책이 있다. 이들은 주제표목 'Folklore-Korea-Juvenile literature'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람과 관련된 옛이야기일 뿐 전형적 전기라고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김경문 이야기인 *The three good events: How a young boy became king in Silla* (OCLC No. 18783299) 등 어디에도 전기로 간주될 만한 정보가 없다.

다른 책도 문제가 있었다. *Leonardo da Vinci: 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Seoul, South Korea: Y. kids, 2008) (OCLC No. 732322964)는 이탈리아인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주제로 한 만화인데, 주제표목에 'Graphic novels-Korea (South)'와 'Korea(South)'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 관련 전기로 검색되었다. 영어전기도서 30권 중 5권(16.6%)은 이처럼 문제가 있었으나, WorldCat 검색의 제한점을 예시하기 위하여 그대로 포함시켰다.

4.3 한국어전기의 주제 인물과 소장도서관

〈표 3〉은 청소년 대상 한국어전기도서 457권 가운데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의 순위대로 20권의 주제 인물을 보여준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이 소장한 한국어전기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서울: 계림문고, 1994)로 모두 46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최창숙 글, 이순신의 『난중일기』(서울: 금성출판사, 2006)로 40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이묘신의 『목민심서』(서울: 금성출판사, 2006)와 장채훈의 『목민심서』(서울: 꿈동산, 2000)를 각각 36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표 3〉 한국어전기의 주제 인물과 소장도서관 수: 상위 20위까지

서명	주제 인물	소장 도서관
김구. (1994). 백범일지. 서울: 계림문고.	김구	46
이순신. (2006). 난중일기. 서울: 금성출판사.	이순신	40
이묘신 글, 정약용. (2006). 목민심서. 서울: 금성출판사.	정약용	36
장채훈 글, 정약용. (2000). 목민심서. 서울: 꿈동산.	정약용	36
이정은 &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4). 유관순: 불꽃같은 삶.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유관순	22
홍양호. (1985). 해동명장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장군	16
최성수. (2007). 우리 역사의 주제적 인물. 서울: 북피아.		13
김영배. (1987). 인민을 위해 천만리.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일성	11
유희준. (1985). 인민들 속에서.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일성	11
송민주. (2001). 나도 일등 한 적이 있다. 서울: 비룡소.	송민주(학생)	10
이상석. (2010). 못난 것도 힘이 된다. 서울: 양철북.	이상석(교사)	10
변운봉. (1985). 항일유격대 참가자들의 회상기.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항일유격대	9
조선을 알아야 한다.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일성	9
친어머니의 사랑 속에.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일성	9
오찬홍. (1988). 한생을 싸움의 길에서.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일성, 최현	7
무지개 비긴 만경대.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일성	7
주체의 새 시대를 펼쳐시오. (1984).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일성	6
유지현. (2009). 조선 왕실의 보물, 의궤. 서울: 도토북.	정조	6
김모세. (1987). 일화로 엮은 134인의 한국 위인전. 서울: 민서출판사.	위인	6
김모세. (1990). 깔깔 조상전. 서울: 예림당.	-	5

주목할 만한 사실은 〈표 4〉에 포함된 20권 중 8권이 북한에서 발행되었고, 이들 중 7권은 김일성이 주제라는 점이다. 평양의 금성청년출판사가 발행한 김일성 전기인 『인민을 위해 천만리』와 『인민들 속에서』는 각각 11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다른 2권은 9개 도서관, 또 다른 2권은 7개 도서관, 그리고 나머지 1권은 5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항일유격대 참가자들의 회상기』(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5)는 일제하 독립을 위해 게릴라 활동을 했던 항일유격대를 주제로 삼은 북한 발행 도서이며,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에선 상위 20위에 올라 있다.

〈표 4〉에서 보는 한국어전기도서 각각에 연결된 소장도서관 리스트 일부는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특정한 도서의 소장도서관 리스트가 실제로 그 도서의 소장도서관만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 4〉의 『난중일기』(서울: 금성출판사, 2006)의 미국 내 소장도서관 리스트에 40개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개별 도서관의 이름을 클릭해 보면 다른 『난중일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리스트에서 소장도서관 Cornell University Library를 클릭하면 노승석이 옮긴 『이순신의 난중일기』(서울: 동아일보사, 2005)로 연결되고, Brown University Library를 클릭하면 허경진이 옮긴 『난중일기』(서울: 중앙북스, 2014)로 연결된다.

이러한 소장도서관 리스트의 혼란은 서로 다른 도서인 이묘신의 『목민심서』(서울: 금성출

판사, 2006)와 장채훈의 『목민심서』(서울: 꿈동산, 2000)를 각각 36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Displaying libraries 1-6 out of 36 for all 62 editions”이라고 명시한 이 두 도서의 소장도서관 리스트는 일치하였다. 이 리스트의 맨 위에 등장한 Arizona State University Libraries를 클릭하면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3)의 서지레코드가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책에 연결된 소장도서관 리스트가 반드시 그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난중일기』나 『목민심서』와 같이 다양한 번역본 혹은 버전이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것은 소장도서관 리스트가 개별 도서(item)가 아닌 저작(work)을 중심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표 4>의 한국어전기의 소장도서관 수에 따른 순위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표 3>에서 본 영어전기의 소장도서관 리스트는 그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Alison Behnke의 *Kim Jong Il's North Korea* (Minneapolis, MN: Twenty-First Century Books, 2008)는 모두 221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서지레코드의 ‘View all editions and formats’를 통해 확인해 보면, 동일한 도서의 2008년 판 1종, 2008년판 전자도서 1종, 2012년과 2014년 개정판 전자도서 각각 1종이 포함되어 있고, 소장도서관 리스트는 이들 4개 판 중 어느 것이라도 소장한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예를 보면 Sohn Won Tai의 *Kim il sung and Korea's struggle: An unconventional firsthand history* (Jefferson, N.C: McFarland, 2003)는 5개 판을 155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이

2003년판 인쇄본 4종(OCLC No. 491048058, 237812579, 249140791, 51914243), 전자도서 1종(OCLC No. 606953271) 중 어느 것이든 소장하였으면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4.4 한국어전기의 주제 분포

청소년 대상 한국어전기 457권 가운데 429권(93.8%)은 개인이나 집단, 주제 등을 명시하였고, 예를 들어 <표 3>에 포함된 『갈갈 조상전』(서울: 예림당, 1990) 등 28권(6.2%)은 전기의 대상을 확실히 명시하지 않았다. 전기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181개로서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집단 및 주제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구, 세종대왕, 이순신과 같은 개인 154명(85.1%), 항일유격대, 명사, 과학자, 독립운동가와 같은 집단 22개(12.2%), 그리고 나무 숭배, 삼국사기, 국가안보, 시조, 성공이라는 5개 주제(2.8%)가 포함되어 있다.

<표 4>에서 개인과 집단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전기의 주제가 된 인물은 세종대왕과 이순신으로 각각 17권씩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들을 주제로 다룬 전기도서들을 소장한 도서관은 그리 많지 않다. 세종대왕 전기를 소장한 미국 내 도서관은 모두 26개인데,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84) 등 2권이 4개 도서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고, 다른 10권은 각각 한두 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5권은 WorldCat에 서지레코드는 있지만 미국 내 소장도서관은 없다.

이순신 전기를 소장한 미국 내 도서관은 모두 58개인데, 앞에서 언급한 최창숙 글, 이순신의 『난중일기』(서울: 금성출판사, 2006)를 40개

〈표 4〉 한국어전기의 주제 (N=181)

유형	전기 주제	주제(명/개)	각 주제별 전기(권)	전기(권)
개인 (154명)	세종, 이순신	2	17	34
	김구	1	11	11
	김일성	1	10	10
	신사임당, 김유신	2	9	18
	안중근, 광개토태왕, 정약용	3	8	24
	김정호, 신채호, 왕건, 유관순, 장보고	5	7	35
	안창호, 윤석중	2	6	12
	강감찬, 김홍도, 원효, 을지문덕, 이성계, 주시경, 한석봉, 허준	8	5	40
	동명성왕, 유일환, 이중섭, 장영실, 황희	5	4	20
	계백, 권율, 전봉준 등	13	3	39
	우장춘, 이태영, 장기려 등	27	2	54
차범근, 황우석, 이휘소 등	85	1	85	
집단 (22개)	항일유격대	1	16	16
	과학자, 위인, 명사, 여성인물, 화랑	5	2	10
	영화감독, 고아, 독립운동가, 문화계인사, 사육신, 신동, 십대, 어린이, 예술가, 왕, 운동선수, 장군, 재상, 종군위안부, 탐험가, 화가	16	1	16
주제(5개)	나무 숭배, 삼국사기, 시조, 국가안보, 성공	5	1	5
	총계	181		429

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순신』(서울: 동아출판사, 1987) 등 2권이 4개 도서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을 뿐, 6권은 각각 한두 개 도서관만이 소장하고 있다. 이순신 전기도 『이순신』(서울: 문공사, 1992) 등 8권은 소장도서관이 없다.

김구선생을 주제로 다룬 전기는 모두 11권이 고, 58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앞서 〈표 3〉에서 『백범일지』는 46개 도서관이 소장하여 단일 도서로는 소장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구선생을 주제로 한 다른 4권은 각각 한두 개 도서관이 소장하였다. 한편 『독립운동의 큰 별 김구』(서울: 민서출판사, 1988) 등 4권은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없다. 김일성이 주제인 전기는 10권으로 모두 68개 도서관이 소

장하였다. 그중 2권은 11개 도서관, 2권은 9개 도서관이 각각 소장하고 있어, 한국어도서관서도 각 권당 평균 소장도서관 수가 다른 도서들에 비해 많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체 개인 15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85명(55.2%)이 단 1권의 전기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옥수수박사 김순권 이야기』(서울: 우리교육, 2000), 『석주명의 나비 이야기』(파주: 북스타, 2011) 등 20권은 미국 내 단 1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의 주제가 된 22개 집단들 중에서는 16권에서 다루어진 항일유격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주제의 도서들은 모두 북한에서 발행되었다. 『항일유격대 참가자들의 회상

기』(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8)는 미국 내 9개 도서관이 소장하였고, 다른 6권은 각각 2개에서 6개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한 권은 소장도서관이 없다. 과학자, 위인, 명사, 여성인물, 화랑이라는 5개 집단은 각각 2권씩의 전기 주제가 되었으며, 영화감독, 고아, 독립운동가 등 15개 집단은 각각 1권씩의 전기 주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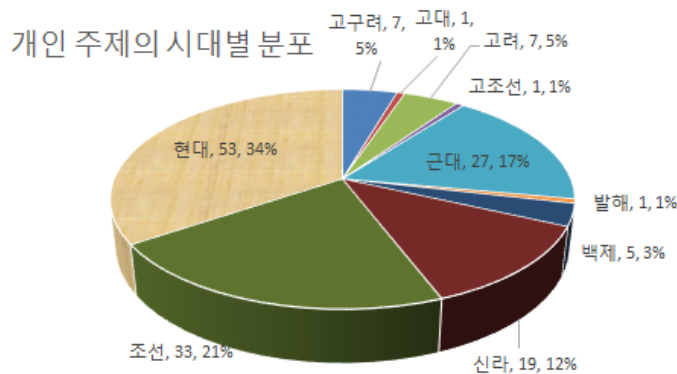
나무 승배, 성공 등 5개 주제는 각각 1권씩의 전기에서 다루어졌다. 이들 가운데 『실패의 전문가들: 우리 시대의 멘토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실패 이야기』(서울: 샘터, 2012)는 미국 내 4개 도서관이 소장하였고,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내 마음 속 빛나는 안보의식: 2010 안보 홍보 공보전』(서울: 경찰청, 2010), 시조를 주제로 한 『역사를 간직한 8가지 시조 이야기』(서울: 어린이작가정신, 2008)는 2개 도서관이 소장하였으며, 나머지 2권은 각각 1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4.5 한국어전기 주제 인물의 특성

청소년 대상 한국어전기의 주제가 된 개인

154명의 활동 시대별 및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다. 우선 이들의 활동 시대별 분포는 <그림 2>에 보는 바와 같다. 추송웅, 박수근 등 현대 인물이 53명(34.4%)으로 가장 많고, 정약전, 이순신 등 33명(21.4%)이 조선시대, 신채호, 서재필 등 27명(17.5%)이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근대 인물이다. 신라시대 인물은 선덕여왕, 김대성 등 19명(12.3%), 고려와 고구려의 인물은 각각 7명씩(4.5%)이며, 백제의 인물이 아도 화상 등 5명(3.2%)이다. 고조선, 발해, 고대의 인물이 각각 1명씩(0.6%)이다. 근현대사 인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전체 주제 인물 154명 가운데 여성은 10명(6.4%)이다. 질풍문화운동가 인병선을 비롯하여 신사임당, 유관순, 혜경궁 홍씨, 황혜성, 김활란, 나혜석, 이정금, 송민주, 조화순이 그들이다. 신사임당(9권)과 유관순(6권)은 여성들 중 가장 많은 전기의 주제가 되었고, 『황혜성: 우리의 맛을 세상에 알리다』(서울: 청어람 미디어, 2012) 등 2권의 주제인 요리연구가 황혜성을 제외한 다른 여성들은 모두 1권씩의 주제가 되었다. 유명인사는 아니지만 조화순은 노동운동가, 송민



<그림 2> 개인 주제의 시대별 분포 (N = 154)

주는 일기를 도서로 펴낸 학생이다. 한편 이정금은 미국 내 4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재갑 글 『백호의 정체: 그림책』(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2)(OCLC No. 845102830)의 주제 인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한편 집단으로서 여성 인물을 주제로 한 『한국 여성사 편지: 마고 할머니부터 안티 미스코리아까지』(서울: 책과 함께 어린이, 2009), 『나는 당당하게 살리라: 한국사를 뒤흔든 여성들』(서울: 푸른 나무, 2005.)라는 2권의 전기가 있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을 주제로 한 『끝나지 않은 겨울』(경기도 파주: 보리, 2010)은 미국 내 3개 도서관이 소장되어 있다.

WorldCat 수록 청소년 대상 한국어전기에서 근현대사 인물의 비중이 크거나, 여성 인물의 비중이 작다는 현상은 소장도서관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 전에 한국 여성의 삶, 혹은 근현대사 이전 인물의 삶에 대한 읽을 만한 전기도서들, 도서관들이 장서에 포함시킬 만한 도서들이 충분히 발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전기도서 출판 현황의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5. WorldCat 분석과 문제점

이 연구에서는 WorldCat에서 한국 관련 전기도서의 서지레코드를 검토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전기도서의 주제 및 미국 내 소장도서관 분포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WorldCat에 수록된 주제 Korea를 포

함한 도서의 서지레코드는 238,872건이다. 이들 중 전기도서의 서지레코드는 총 15,007건으로 일반 대상은 14,089권, 청소년 대상은 918권이다. 28개 주제 패킷 분석 결과는 '역사' 주제가 일반 대상 도서의 44.5%, 청소년 대상 도서의 52.3%로 큰 비중을 차지함을 나타냈다.

둘째, 주제 패킷 분석이 가능한 한국어도서 457권의 미국 내 소장도서관은 950개, 영어도서 30권의 소장도서관은 2,737개로 모두 3,687개이다. 영어도서는 1권 당 평균 91.2개 도서관이 소장하였으나, 한국어도서는 절반 가까운 223권(48.8%)을 한두 개 도서관이 소장하였고, 131권은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없다.

셋째,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가장 많은 책은 입양이를 주제로 한 *We adopted you, Benjamin Koo* (538개)이었고, 한국어도서 중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가 가장 많은 도서관(46개)에서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어도서의 소장도서관 리스트는 해당 도서가 아닌 저작(work) 중심으로 편성된 것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넷째, 한국어전기도서 457권의 주제가 된 개인(154명), 집단(22개) 및 주제(5개)는 모두 181개이다. 세종대왕, 이순신, 항일유격대, 김구, 김일성 등이 10권 이상 전기의 주제가 되었고, 차범근, 이회소 등 85명은 단 한 권의 전기에서 다루어졌다. 영어전기도서 30권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각각 4권에서 다루어졌고, 펜튼, 박세리, 김수로왕 등 17명의 인물이나 한국전쟁, 한미조약(1871) 등 5개 주제는 각각 1권씩에만 다루어졌다. 다양한 한국 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전기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상기한 WorldCat 서지레코드의 현황은 비

교적 단순한 계량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들이 기술한 도서들의 주제 패킷, 주제 인물 및 소장도서관 등의 내용분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동일 인물을 다룬 도서에 상이한 주제 패킷이 부여되었다. 한국어전기의 주제 181명 중 30명의 인물이나 집단을 다룬 전기들에 부여된 주제 패킷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전기 17권은 '어문학'(2권), '정치학'(1권), '역사'(14권)의 3개 주제에 분산되어 있고, 이순신 전기 17권은 '어문학'(1권), '정치학'(1권), '문헌정보학, 총류 및 참고자료'(1권) 및 '역사'(14권)의 4개 주제에 분산되어 있다. 정약용 전기 8권은 '정치학'(1권), '문헌정보학, 총류 및 참고자료'(1권), '어문학'(1권), '역사'(1권) 및 '철학과 종교'(4권)의 5개 주제로 분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인 강감찬이 주제인 『강감찬』(서울: 동아, 1987)이 '어문학'으로, 『강감찬장군』(서울: 중앙문화사, 1977)은 '인류학'으로, 『강감찬』(서울: 계몽사, 1986)은 '정치학'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다른 『강감찬』(서울: 흥문서관, 1997)과 『강감찬, 최영』(서울: 삼익출판사, 1996)은 '역사'에 들어있다. 한 사람을 다룬 전기가 역사를 비롯한 4개 주제에 분산되어 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과 같이 여러 책의 주제가 된 인물들만이 아니라 단 두세 권의 주제인 인물들도 분산되어 있었다. 법률가 이태영의 전기 『이태영』(서울: 웅진, 2005)은 '법학'에, 『이태영』(서울: 동서문화사, 1984)은 '사회학'에 각각 분류되어 있으며, 황혜성의 전기 한 권은 '공학과 기술', 다른 한 권은 '어문학'에 분류

되어 있다.

이것은 WorldCat에 서지레코드를 입력하는 도서관들의 전기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들 중 상당수가 초등학교 수준, 특히 영유아나 저학년 대상 그림책이므로 특정한 주제 분야 인물의 본격적 전기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고, 주제의 분산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주제 분류가 부정확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지적한 주제 패킷의 분산도 일부 부정확한 주제 분류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서예가 한석봉의 전기 『한석봉』(서울: 예림당, 1990)의 서지레코드(OCLC No. 23108812)는 'Calligraphers-Korea-Biography-Juvenile literature'라는 주제표목을 갖고 있는데, '비즈니스와 경제학' 주제에서 'Writings' 소주제로 들어가 있다. 또한 엔씨소프트 대표인 김택진을 다룬 『김택진』(서울: 다산어린이, 2014)의 서지레코드(OCLC No. 895326133)는 'Electronic games industry-Korea (South)--Biography-Juvenile literature'라는 주제표목을 갖고 있으나, '체육학' 주제에서 'Games and Amusements' 소주제로 들어가 있다.

『이순신』(서울: 웅진출판사, 1987)의 서지레코드(OCLC No. 27788730)는 'Korea--History--Japanese Invasions, 1592-1598-Juvenile literature'를 주제표목으로 갖고 있으며, '어문학'에서 소주제로 분류되지 않았다. 『강감찬』(서울: 동아출판사, 1987)의 서지레코드(OCLC No. 22895277)는 'Generals-Korea-Biography-Juvenile literature', 'Korea-History--Juvenile literature'를 주제표목으로 갖고 있으며, '어문학'에서 'American Literature' 소주제로 들어갔다. 이처럼 주제 패

섯만이 아니라 그 아래 소주제 분류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문제적 인물 전기의 사례도 있다. 이것은 WorldCat의 문제이기보다, 개별 도서관 장서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황우석의 꿈: 계란으로 바위를 치자! 하늘을 감동시키자! 한국을 인류 구원 세계의 중심으로!』(서울: 동서문화사, 2005) (OCLC No. 62903352)는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의 전기로서 ‘생명과학’ 주제로 분류되었고, Geneticists-Korea(South)--Biography, Stem cells-Transplantation-Research -- Korea (South)--Juvenile literature 등 주제표목이 주어졌다. 진실을 왜곡한 인물의 전기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한국 과학자에 관하여 알고 싶은 독자에게 유일한 읽을거리가 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된 인물을 특정 시점, 즉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극도로 미화했던 도서만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언론, 정치, 교육계 인물로 저명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을 주제로 한 『김성수』(서울: 동서문화사, 1984), 『믿음으로 산 김활란박사』(서울: 보이즈사, 1982) 같은 전기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갖는다. 공과가 있는 사람의 삶을 객관적으로 진솔하게 그리기보다, 역사학자 전우용이 지적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드러나는 비범성,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 결함을 찾기 어려운 완벽한 인간성 등 친편일률적인 ‘위인의 모델’을 만들어”(한겨레신문 2015) 왔던 우리나라 전기 도서 출판시장의 문제적 행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읽을거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다른 나라 도서관 이용자들이

에게 편향적 지식을 줄 가능성도 있다.

넷째, 소장도서관 리스트의 부정확성 문제이다. 앞서 『백범일지』, 『난중일기』, 『목민심서』의 경우처럼 특정한 도서의 서지레코드에 연결된 소장도서관 리스트가 해당 책이 아니라 해당 저작의 소장도서관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책들의 소장도서관 리스트에도 자주 이렇게 책과 저작이 섞이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WorldCat Identities Network에서 김구선생의 아이덴티티 레코드에는 ‘김구에 관하여 가장 널리 소장된 책’ 리스트에 『백범일지』가 들어있다(OCLC 2014f). 이 책은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서울: 돌베개, 2002) 서지레코드(OCLC No. 50944888)로 연결되고, 미국 내 소장도서관 리스트의 25개 도서관은 모두 바로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석한 몇몇 책들의 소장도서관 리스트에는 분명 혼란이 있고, 향후 분석이 필요하다.

6. 맺음말

WorldCat 자체가 “집합 컬렉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수록된 다양한 주제로 가상의 컬렉션이 구성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넓게는 한국 관련 전기책의 “집합 컬렉션”, 좁게는 미국 내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관련 전기책의 “집합 컬렉션”이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컬렉션을 통해 한국인,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지식이 확산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집합 컬렉션”은 개별 도서관의 정책이나 관심에 따라 선택된 도서들의 파편적 데이터가

모인 것이므로 도서들의 수준뿐 아니라 그것을 기술한 서지레코드의 수준도 균일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검토한 한국 관련 전기도서들의 서지레코드에서는 주제, 주제 인물, 소장도서관 리스트 등에서 데이터 오류와 혼란이 관찰되었다.

앞서 언급한 OCLC 자체의 연구들은 WorldCat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내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가능하였

다. 하지만 이 연구는 WorldCat 이용자에게 공개된 서지레코드의 외부 데이터만을 분석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WorldCat을 연구자가 직접 검토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찰한 문제점을 기술하는 데 그쳤을 뿐,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향후 이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1] 윤정옥, 2012. 도서관 목록의 지식 확산 도구 역할에 관한 시론(試論).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123-141.
- [2] 윤정옥, 2013. WorldCat 수록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도서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5-23.
- [3] 전우용의 현대를 만든 물건들: 위인전, 2015. 『한겨레신문』, 10월 13일, 제29면.
- [4] Dickey, T. J. 2011. "Books as Expressions of Global Cultural Diversity."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55(3): 148-162.
- [5] Harrod, L. M. 1984. *Harrod's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and Reference Book*. 5th ed. Farnham, UK: Gower Publishing Company.
- [6] Lavoie, B. F., Connaway, L. S. and O'Neill, E. T. 2007. "Mapping WorldCat's Digital Landscap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51(2): 106-115.
- [7] Leung, S., Chan, K. and Song, L. 2006. "Publishing Trends in Chinese Medicine and Related Subjects Documented in WorldCat." *Health Information & Libraries Journal*, 23(1): 13-22.
- [8]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2015a. *WorldCat facts and statistics*.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9. 3.] <<http://www.oclc.org/en-asiapacific/worldcat/catalog.html>>
- [9]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2015b. *Directory of OCLC Members*.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9. 3.] <<http://www.oclc.org/en-asiapacific/contacts/libraries.html>>

- [10]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2015c. *Refining a Search*.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10. 1.]
<<http://www.oclc.org/support/help/worldcatorg/ApplicationHelp.htm>>
- [11]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2015d. *Enriching WorldCat with FAST*.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10. 11.]
<<http://www.oclc.org/content/dam/support/worldcat/records/faceted-application-of-subject-terminology.pdf>>
- [12]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2015e. *WorldCat Identities Network*.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10. 21.]
<<https://www.oclc.org/developer/gallery/worldcat-identities-network.en.html>>
- [13]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2015f. *金九 1876-1949*.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10. 13.]
<<http://www.worldcat.org/wcidentities/lccn-n81017839>>
- [14]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2013a. *WorldCat facts and statistics*.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6. 8.]
<<http://www.oclc.org/en-asiapacific/worldcat/catalog.html>>
- [15]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2013b. *OCLC WorldCat*.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3. 6. 8.]
<<http://www.oclc.org/en-asiapacific/worldcat.html>>
- [16]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2013c. *WorldCat Database Reaches 2 Billion Holdings*.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3. 6. 8.]
<<http://www.oclc.org/en-asiapacific/news/releases/2013/201322dublin.html>>
- [17]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Research. 2015a. *What in the WorldCat?*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9. 25.]
<<http://www.oclc.org/research/wtworldcat.html>>
- [18]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Research. 2015b. *Top 25 Inventors Found in Libraries: Can you name their most famous inventions?*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9. 25.]
<<http://www.oclc.org/research/wtworldcat/topinventors.html>>
- [19]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Research. 2015c. *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 Dublin, USA: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9. 25.]
<<http://www.oclc.org/research/themes/data-science/fast.html>>
- [20] O'Neill, E. T., Connaway, L. S. and Dickey, T. J. 2008. "Estimating the Audience Level

for Library Resourc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59(13): 2042-2050.

- [21] Sutherland, Z. and Arbuthnot, M. H. 1986. *Children and Books*. 7th ed. New Jersey, USA: Allyn & Baco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Yoon, Cheong-Ok. 2012. “A Discourse on the Role of Library Catalogs as a Tool for Knowledge Distribu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123-141.
- [2] Yoon, Cheong-Ok. 2013. “An Analysis on the Juvenile Books on Korea and Japan in the WorldCa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5-23.
- [3] “Jeon U-yong’s Things to Make the Modern Society: Bioraphies of the Great People.” 2015. *The Hankyoreh*. October 13. p.29.

